

# 의미와 진리 뺏어내는 '존재의 처소' 몸

우리는 왜 몸을 이야기하는가...

존재론적 고민 담보한 진지한 성찰 요구돼

조광제 | 철학아카데미 대표

20세기 말에 이르러 포스트모더니즘이 사상계를 주도하면서 몸 담론이 넘치기 시작했다.

도구적 이성에 대한 반발, 페미니즘의 성 정체성 담론 열기, 생태학적 사유의 확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쇠퇴 등이 몸 담론을 활성화시킨 요인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몸 담론은 철학적이기보다는 사회학적인 경향이 우세하다. 자본주의적인 몸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지만 한편으론 몸에 대한 강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몸 담론 확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푸코의 말에 따르면, 담론이란 실제와 함께 엮이면서 실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참/거짓의 뚜렷한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 못 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몸 담론은 몸을 둘러싼 직/간접, 긍정/부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몸 담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몸을 둘러싼 직/간접, 긍정/부정의 실체들이 재형성되는 것이다.

## 도구적 이성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몸 담론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몸을 존재론적인 근원적 기반으로 삼아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한 인물은 모리스 메를로-퐁티(1908~1961)다. 그는 '사태 자체에로'(Zu den Sachen selbst)라는 현상학의 원리에 따라 몸의 현상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현상임을 역설하면서 몸의 인식론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기반을 잘 드러냈다. 이는 1945년에 쓴 《지각현상학》과 유고집인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에 특히 잘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곧바로 그의 철학이 몸 담론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이 여러 분야의 지성적 담론을 달구고 주도하면서 이윽고 몸 담론이 넘치기 시작했다. 그 이유를 가늠해보면, 우선 도구적 이성에 대한 반발을 꼽을 수 있다.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성의 시대가

열렸지만, 사회적으로 이성의 시대는 곧 자본주의의 시대였다. 테일러/포드주의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이성에게 집중적으로 통제·관리·조직되는 몸의 계급으로 보고 철저히 효율적으로 그들의 몸을 착취했다. 도구적 이성으로 인한 몸의 착취는 곧 인간의 착취임이 밝혀지면서, 몸이 곧 인간됨의 근본임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구조주의가 개인의 이성적 주체를 폐기한 것은 이런 자본주의적 상황에서 개인의 몸이 구조적으로 규정되고 당할 수밖에 없을 뿐,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위력으로 근원적인 욕망을 분출한 1968년 사태를 경험한 뒤 열리게 된 포스트-구조주의의 흐름은 이와 다르다. 얼마든지 구조적인 이성의 '차꼬'에서 개별적인 인간의 욕망이 벗어날 수 있음을 간파했고, 이에 욕망의 주체를 전면으로 내세우게 된다. 데리다의 탈중심적인 해체와 산포라든가 들뢰즈의 유목민적 사유 또는 리쑤(뿌리쑤기)적인 세계관 등은 결코 이성적인 체계로 담아낼 수 없고 담아내서도 안되는 욕망의 주체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욕망과 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에, 푸코는 '생체-권력'을 내세워 권력이 어떻게 몸을 공격해 들어오고 또 몸이 어떻게 권력을 생산해내는가를

이야기했고, 들뢰즈는 '기관 없는 몸'을 내세워 신경증적인 몸의 원초성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 페미니즘·생태학의 부상과 맞물려

이 와중에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성 정체성에 관한 담론들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성적 존재로서의 남성은 몸 내지는 욕망 중심의 존재인 여성을 당연히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종래의 이분법을 근본부터 깨뜨리는 데는 당연히 몸의 원초성과 근본성이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남성의 몸보다 여성의 몸이 몸의 근원성을 더 잘 드러낸다는 주장을 덧붙이고자 할 때, 몸 담론만큼 페미니즘을 정당화하는 데 긴요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몸이 시대적인 담론의 화두로 대두되는 데는 생태학적인 상황 역시 크게 힘을 더하게 된다. 생태학적인 사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는 식으로 인간 특유의 이성적 존재를 강조하는 것과는 도무지 양립할 수 없다. 생태학적인 사유가 성립하자면, 지구 전체의 생물계를 하나의 연속적인 존재 체계로 묶어낼 수 있는 존재론적인 기반이 살아 있는 몸임을 확인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몸과 못 사물들의 몸이 주체성과 대상성을 상호 교환하면서 존재한다는 메를로-퐁티의 살 개념은 이런 생태학적인 사유에 근본적인 기반을 제

공할 수 있다. 이성에 의한 추상화와 이념화를 사유의 전략으로 삼아 발전하는 과학기술주의가 생태학적인 사유와 정면으로 대립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전통적으로 합리적인 기획에 의해 사회를 혁명해나가야 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쇠퇴 역시 몸 담론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라는 데는 논자들이 거의 합의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를 변혁해갈 근본전략으로 더 이상 합리성에 의거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기댈 곳이 어디냐 하는 의문이 떠오르고, 그 결과 타인들 혹은 타인들의 몸과는 물론 온 우주의 몸과 더불어 야생적인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몸의 원초적인 힘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모두를 추상적인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에 대적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한 것이다.

**철학적 담론보다 사회학적 담론 우세해**

몸 담론에 대한 이런 배경들이 반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친자본주의적인 혹은 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힘입은 배경들도 있다. 어쩌면 이 배경이 몸 담론을 부추기는 데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현대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것들이다. 최근 유전 공학의 발달에서 잘 드러나듯 의료-생리학적인 기술 발달은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영양과 수명 연장의 꿈을 안겨 주고 있다. 이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기반을 상실한 현대에서 생명을 향한 맹목적인 이끌림을 부추기고 아울러 이런 방향에서 몸에 관한 관심을 증폭시킨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인들의 삶을 크게 규정하는 것은 성주체로서의 삶이다. 만족스런 성행위를 잘 수행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인간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것이 건강·수명의 신화와 결합돼 확산되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몸 담론은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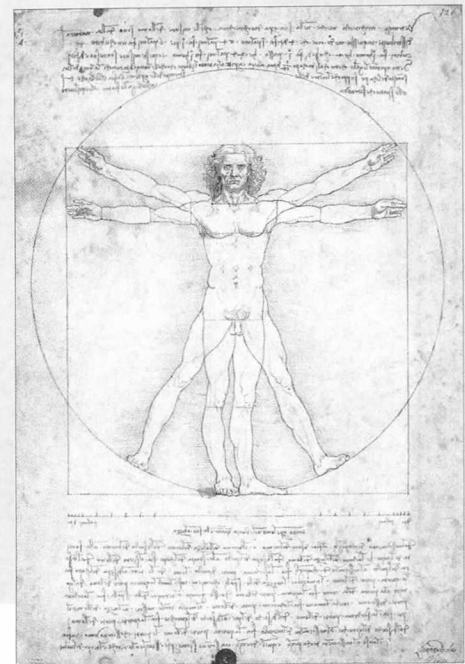
또 하나는 디지털 혁명이다. 디지털에 관련된 '컴퓨터' '인터넷' '가상 현실' '사이버' 등의 기술은 대다수의 인간에게서 사유 능력을 빼앗아가고 상상력을 빼앗아가고 감지 능력을 빼앗아간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풍부한 멀티 감각적인 환경이 주변

에 들어서고 있다. 이전에는 인간의 두뇌에서 어렵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내적인 대상들이 마치 사물과 동등한 현실성을 띠고서, 아니 사물 이상의 현실성을 띠고서 어엿한 외부의 대상으로 직접 지각되면서 다가온다. 외적 대상으로 탈바꿈한 듯 감각적인 내용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인간을 강타한다. 당연히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몸 전체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대적인 인식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런 인식 환경에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감각적인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고서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초조감이 자리잡게 되고, 그 결과 다이어트 열풍을 비롯한 '성형' '화장술' '패션' '바디 샵' 등 자기 몸 관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환경들이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몸 담론을 부추기는 가운데 몸에 관한 철학적 담론에 비해 사회학적인 몸 담론들이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사회학적인 몸 담론들은 대체로 자본주의적으로 추구되는 몸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인 몸 환경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되고 있는 실제 속에 제대로 편입되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없다는 강박감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역설에 빠지기 쉽다. 아울러 몸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계기로 폄하하기 쉽다.

**삶의 해방을 지양해야 할 몸 담론**

철학적인, 달리 말하면 존재론적인 몸 담론이 제대로 확산되지 않으면 몸 담론과 몸을 둘러싼 사회 실체는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몸은 물리적인 질서와 생명적인 질서와 인간적인 질서 모두를 구현하지만, 특히 인간적인 질서를 중심으로 나머지 두 질서를 포섭·변형한다고 말한다. 또 몸은 못 문화 예술적인 형태들을 자신 속에 습관화함으로써 몸소 다종다양한 의미들을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몸은 다른 몸들과 이미 상호작용하는 상호신체적인 존재로서 고립된 자아의 늪에서 이미 빠져나와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몸은 심지어 인간이 만들어놓은 못 인위적인 껍질을 벗겨내고서 존재의 원초적인 상태를 드



20세기 말에 이르러 몸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담론들이 존재론적 깊이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몸은 점점 추상화되고 왜곡될 것이다.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비례>.

러내는 야생적 사실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몸은 여타 모든 동식물들을 비롯한 사물들과 더불어 동근원적인 뿌리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 그런 사물들과 주체성과 대상성을 교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사물들을 만지 고자 할 때, 그 사물들이 나를 만지는 것을 만지지 않고서는 그 사물들을 만질 수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다른 사물들을 보고자 할 때, 그 사물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그 사물들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존재는 우리의 몸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몸과 이미 하나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물들의 몸을 통해 그 의미와 진리를 뿜어낸다는 것이다.

여러 방식으로 여러 부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몸 담론이 이런 존재론적인 깊이를 상실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몸'에서 연상되는 표피적인 감각을 운위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축소되고 왜곡된 몸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몸의 해방은 추상화되고 이념화된 삶으로부터 구체적이고 널리 퍼져 나가면서 함께 뒤섞이는 삶의 해방을 말하는 것임을, 그럼으로써 더욱 근원적인 방향으로 삶을 지향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된다.●